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중간값 419,300불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강세, 글로벌 무역 인플레이 압박
- CNBC: 미 경기 둔화 암시하는 지표로 국채 수익률 하락
- Bloomberg: 남가주 연간 주택 보험 1만 불로 구매자에 큰 부담
- WSJ: 엔비디아의 호황은 오히려 주식 시장의 문제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 개보수 부담 커
- CNN Business: 뉴욕주지사,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규제법 최초로 서명

[미국 생활]

- Bloomberg: 미국 폭염에 암트랙, 뉴저지 트랜짓 철도 서비스 3일 연속 지연
- CNBC: 미국인 90%, 최소 3개월 생활비 저축 인식 불구 저축률은 낮아

[주택]

- CNN Business: 미국 모기지 금리, 4월 초 이후 최저치로 하락

[중국 경제]

- CNBC: 중국, 전기차 산업에 최소 2천3백억 불 투자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캐주얼 식당 체인으로 이동하는 고객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ome Prices Hit a Record High

미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 주택 매물이 적어 구매자끼리 일부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5월 미 주택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 5월 기존 주택 중간값은 작년보다 5.8% 상승한 41만9천3백달러라고 오늘 금요일 전국부동산협회는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은 지난 1999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다.

- 높은 모기지와 함께 이같은 높은 집값은 주택 구매가 가장 활발한 올 봄에 주택 판매를 제한시켰다.
-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달보다 0.7% 감소해 계절 조정치로 연율 4백11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는 연간 기준으로 2.8% 하락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rong Dollar Creates Another Inflation Headache: Trade Tracker **달러 강세, 글로벌 무역 인플레이 압박**

- 강달러는 금융 시장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 회복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 인플레이에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자국 통화의 약세로 원유와 식품, 물류 가격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달러 강세로 기뻐하는 성향이 있는 수출업자들조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의 경우 달러 대비 원화가 5% 절하된 상황에서 수입 원자재가 더 부담이 되고 있다.
- 일본 수출 업체들의 경우 30년 만의 엔화 약세에 따른 단기적으로 수입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급망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 물가 압력은 글로벌 제조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일본, 중국처럼 평균 투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은 불리한 환율에 주목하고 있다.
- 관련 구매관리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입비용 인플레이는 지난 4월에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홍콩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줄어들었고,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독일 비즈니스 심리 지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 평균치에 비해 뒤쳐져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Treasury yields retreat after data hints at slowing economy **미 경기 둔화 암시하는 지표로 국채 수익률 하락**

-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최근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오늘 금요일 오전 미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했다.
- 10년물 국채의 경우 2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23%로 거래 중이며 2년 물의 경우도 2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707%를 보였다.
- 어제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상승한 반면에 주택 착공은 지난 달에 예상보다 감소했다.

CNBC 기사

Bloomberg: Home Insurance at \$10,000 a Year Shows California Buyers' Pain

남가주 연간 주택 보험 1만 달러로 구매자에게 큰 부담

-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 가격과 부족한 매물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힘든 주택 시장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제는 산불 때문에 주택 보험으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 대출 기관은 보험이 대출 승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매자와 긴밀히 상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관련 조사 Guaranteed Rate에 따르면 주택 보험료가 지난 5년 전에 비해 최고 55%까지 크게 상승해 가계의 모기지 예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장 심각한데, 보험 회사들의 보험을 적용하는 내역을 줄이거나 철회하고 있다. 이는 산불로 인한 비용 상승과 주 정부의 보험료 상승 제한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WSJ: Nvidia's Success Is the Stock Market's Problem

엔비디아의 호황은 오히려 주식 시장의 문제

- 현재 S&P 500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한 개 기업 즉, 엔비디아가 주도해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하락해 고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 작은 기업들로 이뤄진 러셀 2000지수는 최고치였던 지난 2021년 11월에 비해 17% 하락했고, 올해 내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S&P500의 경우도 장중 13일 가운데 11일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98개 기업만이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였다.
- 특히 우려되는 점은 S&P 500이 경우 엔비디아 한 개 기업이 이달 들어 상승폭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 지난 2022년 이래 S&P 500 상승폭의

44%를 차지했다. 만약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다면 시장은 약했을 것이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Takes on Weighty Task: Fixing the Brooklyn-Queens Expressway

뉴욕시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 개보수 부담 커

- 뉴욕시는 50억을 들여 오랫동안 악화되어 온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이 개보수 공사안을 제시했다.
- 이 도로는 하루에 1만3천대의 자동차와 트럭이 이용하는 매우 노후화된 도로다.
- 이 방안에는 75년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중에 0.5마일이 채 되지 않는 구간을 교체하는데 이곳은 브루클린 브리지 이스트리브 쪽 인근 지역이다.
- 현재 전문가들은 해당 구간의 조만간에 개보수되지 않을 경우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행 중단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New York governor signs bill regulating social media algorithms, in a US first

뉴욕주지사,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규제법 최초로 서명

- 뉴욕 주지사 Kathy Hochul이 오늘 목요일,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아동 데이터 사용을 규제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뉴욕은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 그의 서명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며칠 전 Vivek Murthy 미 보건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뉴욕의 어린이 안전법(SAFE For Kids Act)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18세 미만 어린이의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은 웹사이트가 동의 없이 18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는 기존의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대한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Amtrak, NJ Transit Commuters Face Disruptions in NYC Again**미국 폭염에 암트랙, 뉴저지 트랜짓 철도 서비스 3일 연속 지연**

-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암트랙과 뉴저지 트랜짓 철도 서비스가 전력 문제로 4일 만에 세 번째로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 금요일의 교통 혼란은 화요일의 수 시간 지연과 목요일의 전선 문제 및 산불로 인한 정전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뉴욕시를 오가는 통근자들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기록적인 폭염이 미국 동부 해안을 휩쓸면서 철도, 교량, 가공선이 팽창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Bloomberg 기사

CNBC: How much money Americans need saved for emergencies to feel comfortable, and how much they have**미국인 90%, 최소 3개월 생활비 저축 인식 불구 저축률은 낮아**

- 미국인 대부분은 비상 자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Bankrate의 2024년 연간 비상 저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90%가 최소 3개월의 생활비를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60%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저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는 실제로 1,000달러의 긴급 지출도 감당할 수 없는 저축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미국 노동부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물가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주스와 음료 가격이 약 20% 상승하는 등 특정 지출 항목의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Bankrate의 수석 경제 분석가 Mark Hamrick은 인플레이션이 저축률 제고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CNBC 기사

[주택]**CNN Business: Mortgage rates fall to their lowest level in almost three months****미국 모기지 금리, 4월 초 이후 최저치로 하락**

- 이번 주 모기지 금리가 4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 미국 모기지 금융 기관 프레디 맥에 따르면 6월 20일로 끝나는 주에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6.87%로 지난주 6.95%에서 하락했다. 이는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24년 최고치였던 7.22%에서 내려간 수치이다.
- 프레디 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Sam Khater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기지 금리 하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금리 하락이 주택 공급 개선과 맞물려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CNN Business 기사

[중국 경제]**CNBC: China has spent at least \$230 billion to build its EV industry, new study finds****중국, 전기차 산업에 최소 2천3백억 불 투자**

- 미국 전략 국제 연구 센터(CSI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0년간 전기차 산업 발전에 2천3백8억 달러를 투자했다.
- CSIS의 스콧 케네디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1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출 비율이 2017년 이전에는 40% 이상이었지만, 2023년에는 11%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100%로 인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케네디는 중국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국내 제조업체를 선호하는 비재정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만큼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Fast-food customers are shifting to casual-dining chains, Darden Restaurants CEO says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캐주얼 식당체인으로 이동하는 고객들

- Darden Restaurants의 CEO Rick Cardenas는 목요일,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캐주얼 식당 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Darden은 아직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경쟁사인 Chili's와 Applebee's는 패스트푸드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Chili's는 패스트푸드 버거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고, Applebee's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
- Cardenas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업계 데이터를 인용하며, 캐주얼 다이닝 체인으로 일부 고객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메뉴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3.5% 상승한 반면,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제한 서비스 식당의 가격은 4.5% 상승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식사를 찾기 마련이지만,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

CNBC 기사

"미 금융시장 '트럼프플레이션' 대비...골드만삭스 "금 사라""

엘런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미국 소비자·기업에 부담"

미국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18일자(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금 매수를 권유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20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등 지정학적 충격,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약화, 부채 공포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강화할 위험에 대응할 방안으로 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